

해남군, 인재육성 장학금 확대…특기·재능 집중 발굴

특기자 15개분야 430명 43% 확대
대학 성적우수자 장학금 신규 도입
사회봉사 등 모범 청소년 발굴
초등학력 인정 만학도 장학제도

해남군이 올해 지역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미래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교육재단은 지난 7일 2024년 해남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상자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올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성적우수, 예체능특기자 등 15개분야 430명, 3억 8000여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43% 확대된 금액이다.

군은 대학생 성적우수, 지역사회공헌 분야 등 장학금 지원 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특기와 재능을 발굴하고 학업의 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대학생 성적우수자 장학금은 지역출신 대학생

중 학기 성적 우수자에 대해 국비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공헌 장학금의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비롯해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초중고 재학생 중 도단위 이상 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예체능 특기자 장학금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 처음 도입한 만학도 장학금에는 초등학력 인정의 해남군 문해학교인 꿈보배학교 재학생들이 장학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관내 초중고 학생 80여명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식전공연으로 예체능 특기 장학생으로 구성된 해남동초, 해남중, 제일중 9명의 댄스팀 공연과 해남 송지면 출신으로 서울국립전통예술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려원 학생이 25원 가야금을 연주해 예체능 특기자로서 재능을 뽐내기도 했다.

만학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꿈보배학교



해남군교육재단이 지난 7일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해남군 제공

8명의 어르신들도 수여식에 참석해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배움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장학생 수상자들은 “이번 장학생 선발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어른으로 성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군민들이 십시일반 장학기금 500억원 조성에 열심히 동참해 주고 계신다”며 “군민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으로 오개’ 준공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구축

무안군은 ‘무안으로 오개’ 반려동물 놀이터를 준공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안군 일로를 오희리 470번지 5400㎡ 면적에 소형견 및 대형견을 구분해 야외 놀이시설, 녹지시설을 비롯해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무안에는 그동안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공원 및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반려인과의 충돌이 잦았는데 이번 반려동물 놀이터 준공을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체계 및 수목의 원활한 활착 및 잔디 정비 후 내년부터 무료로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준공되기까지 기다려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 주민 모두가 함께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목포시, 국악관현악 공연 개최 23일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시는 오는 23일 오후 5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관현악단 코리아이즈의 특별 공연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Break out and Fly #2’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날 수 있다’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작품들로 기존 국악의 틀을 넘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담아낸다.

공연 1부에서는 기존 클래식한 국악관현악 작품으로 한국 창작 음악의 대표주자인 백대웅과 황호준의 곡을 통해 전통 국악의 정수를 선보인다.

백대웅의 ‘남도아리랑’을 시작으로, 황호준의 ‘바르도’와 함께 다양한 국악 오케스트라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전통음악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한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담은 곡으로 관객을 만난다. 전자음악과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한 연주를 통해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국악관현악의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관람 대상은 8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전석 1만원으로 지정 좌석제를 시행한다. 목포, 무안, 신안 주민들은 50%의 관람료를 할인한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또는 목포시문예시설관리사무소 회관공연팀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4년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목포를 포함한 3개 문예회관에서 공동 개최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영암군, 이사비용·중개수수료 지원 1인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등

영암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2024년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 지원사업은 영암군으로 전입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용과 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1인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중 올해 영암군에 전입한 세대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다자녀 가정은 신청일 기준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이달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보거나 인구정책팀정책과(061-470-2081)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한교진 기자

무안군, 내년도 국도비 확보 상·하수도 분야 521억원

무안군은 2025년도 상·하수도분야 사업비로 국도비 521억원(신규사업 4건 260억원·계속사업 11건 261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무안군은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 현안 사업을 적극 건의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번 예산확보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어려운 무안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무안·일로·청계배수지 비상공급시설 확충사업(총 210억원)과 삼향·청계농공단지 인근 하수관로 정비사업(총 189억원)은 202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속사업은 내년도에 준공되는 청계·해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효율적인 오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영암군 관계자들이 미암면 부암마을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부암마을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영암군 공무원 15명이 지난 8일 미암면 부암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미암면과 산림

휴양과, 대불기업지원단 공직자들은 이날 한 마을 어르신의 고추밭 등에서 고춧대, 지지대 뽑기 등 고추밭 정리작업을 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강진군 다산박물관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 특별전

내년 5월 11일까지 개최

강진군다산박물관은 14일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 특별전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어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학 정신과 더불어 그의 학문적 열망을 관람객들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중에 기록한 해양생물 백과사전으로 바다생물을 통해 실학 정신을 실천하고 섬사람들의 생활을 돕고자 했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자산어보의 완성 과정에는 정약용의 제자 이청(李晴, 1792~1861)의 문헌 고증이 더해져 공동연구로서 더욱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이번 전시는 이청의 기여와 실학자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특별전은 정약전이 생각했던 ‘자산어보’의 당초 구상인 그림백과 형태로 구성됐다. 전시는 총 6부로 나뉘어 1부 ‘자산어보 속으로’, 2부 ‘나눔과 묶음으로 한눈에 쏙’, 3부 ‘보고 듣고 알아내다’, 4부 ‘이름을 짓자’, 5부 ‘쓰임을 찾자’, 6부 ‘그림 백과로 쓰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점자 및 음성 지원 패널, 어린이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낮은 전시물,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 최대한 한자를 배제하고 현대적 명칭을 사용하여 쉽게 설명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박물관 집인의 문턱을 낮췄다.

정약전의 생물 분류 방식에 따라 ‘비늘이 있는 물고기’, ‘없는 물고기’, ‘껍데기가 있는 생물’ 등으로 나누어 관람객이 판

을 올려놓으면 해당 생물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산어보에 기록된 해양생물 131종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풀어내어 학문적 의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다산박물관특별전 개막식은 14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며 개막식 공연은 오후 1시30분부터 국립남도국악원에서 관람객들을 위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별전 개최를 기념해 다산박물관은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료 관람을 진행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정약전의 학문적 열망과 이청의 실학자로서의 기여를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영상과 AI(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한 특별한 전시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김운복 기자